

인구효과를 제거한 취업자 수 변화의 의미

김 종 욱*

취업자 수 증감을 고용률 변화 기여분과 인구효과(인구 비중 및 인구 수 변화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023년을 기점으로 인구효과는 더 이상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지 않았다. 2024년 상반기 취업자 증가분 대부분이 고용률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

성별·연령별·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요인을 분해한 결과, 각 부문에서 인구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청년층과 40대 취업자 감소는 주로 인구효과에 의한 것이었다. 제조업에서는 인구효과를 제거한 취업자 수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다. 건설업에서는 2분기 들어 인구효과를 제거한 취업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정도를 제외하면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중 변화로 인해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산업은 많지 않았다.

과거와 비교해서 각 부문별로 인구효과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비슷한 크기의 취업자 수 증감이 관찰된다고 할지라도 해당 통계가 내포하고 있는 고용 상황까지 유사하리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과거에는 30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기본적인 취업자 수 증가를 담보하던 시기도 있었다. 인구 증가폭은 줄었고, 늘어나는 인구 대부분은 고령층이다. 취업자 수 증감 해석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1. 머리말

취업자 수 증감은 오해하기 쉬운 통계이다. 고용 통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취업자 수 변화를 일자리 수의 변화로 받아들이면 통계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을 진단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한다.

1년 전에 비해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늘고 20대 청년층 취업자가 줄었다는 언론보도를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jwkim@kli.re.kr).

접했다고 가정하자. 취업자 수 변화를 일자리 수 변화와 혼동하면 위 문장을 60대 이상 고령층이 일하는 일자리는 늘었고, 젊은 사람이 일하는 일자리는 줄었다고 받아들인다. 고령자가 일할 만한 일자리만 늘었고 청년들이 일할 만한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다고 오해한다. 여기다 각 연령대가 주로 종사하는 산업 정보까지 더해지면 젊은이들이 일할 만한 산업의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고령층이 주된 종사자인 산업의 일자리만 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취업자 수는 흔히 생각하는 일자리 수 변화와는 다른 개념이다. 취업자 수 증감이란 특정 두 시점에 일하는 사람의 수를 비교하여 산출된다. 두 시점 간 '사람 수' 자체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 인구가 2배로 늘었고 고용률에 아주 큰 변화가 없었다면 취업자는 자연스럽게 2배가량 늘어난다. 또 인구 절대치는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1년 전에 비해 청년층 인구 비중이 대폭 늘었다면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의 고용률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취업자도 증가한다. 즉, 취업자 수 변화는 비교하는 두 시점의 절대 인구 크기, 연령별 인구 비중 등 인구효과의 영향을 받는다.

취업자 수는 일하는 사람의 비중 변화(고용률 변화), 경제활동참여율의 변화,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한다. 고령층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고령층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물론, 취업자 수 변화만으로 고용 변화를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된 고용률을 함께 살펴 보기도 한다. 다만, 고용률 변화 역시 인구변화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인구 수준이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면 취업자 수준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고용률이 오른다. 일하는 사람 수는 동일한데 인구가 줄어들어 마치 고용 상황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다. 또한 취업자 증감 수치에 비해 변화의 크기에 대한 직관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취업자가 10만 명 증가했다는 표현이 고용률이 0.1%p 증가했다는 것보다 변화의 정도가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취업자 수 증감이 여전히 고용의 양적 변화를 대표하는 통계인 만큼 그 의미를 살리면서도 인구효과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취업자 수 증감을 요인 분해하여 고용률 변화로부터 기인한 부분과 인구효과의 영향을 받는 부분으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성별·연령별·산업별 취업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 부문별 취업자 증감을 요인별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 취업자 증감을 요인 분해하여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본 후 성별, 연령별, 산업별로 취업자 증감 요인 분해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것이다.

II. 취업자 증감 분해 방법

취업자 증감을 요인별로 분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활용한다. 특정 시기(t)의 취업자 수(Y_t)는 성별·연령대별로 구분된 집단의 취업자 수($Y_{j,t}$)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성·연령대별 취업자 수는 각 집단의 고용률($emp_{j,t}$)과 인구 비중($pp_{j,t}$), 인구 수(p_t)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Y_t = \sum_j Y_{j,t} = \sum_j emp_{j,t} \times pp_{j,t} \times p_t$$

성별은 남녀, 연령은 5세 단위로 구분하여 총 22개의 인구집단이 분해에 활용된다. 각 인구집단의 고용률은 성·연령대별 취업자 수를 해당 집단의 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인구 비중은 각 집단의 인구 수를 15세 이상 전체 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위 식은 취업자 증감을 단순히 인구비와 인구 수준을 이용하여 표현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은 관계에 놓인다.

이를 이용하여 특정 시점(t, s) 간 취업자 수 증감은 아래와 같이 각 성·연령대별 고용률, 인구 비중, 인구 수 변화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begin{aligned} \Delta Y_{t,s} &= Y_t - Y_s = \sum_j emp_{j,t} \times pp_{j,t} \times p_t - \sum_j emp_{j,s} \times pp_{j,s} \times p_s \\ &= \sum_j \Delta emp_{j,t} \times pp_{j,t} \times p_t + \sum_j emp_{j,s} \times \Delta pp_{j,t} \times p_t + \sum_j emp_{j,s} \times pp_{j,s} \times \Delta p_t \end{aligned}$$

위 식의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합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취업자 증감(②+③), 즉, 인구효과로 간주한다. 인구효과를 제거한 취업자 수 증감은 일하는 사람의 비중 변화(고용률 변화)에 의한 변화분만 남게 된다. 고용률 변화는 노동시장의 균형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므로 노동공급 측 변화도 일부 포함된 결과이다. 다만, 경제활동참가율이 안정적인 추세에 있어 노동공급 측 변화가 크지 않다면, 단기적인 고용률 변화는 주로 노동수요 측 변동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정대희 외, 2017).

각 성·연령대별 특정 산업의 취업자를 해당 집단의 인구수로 나눈 값을 활용하면 인구효과를 제거한 산업별 취업자 증감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전체 취업자 증감 분해와 산업별 취업자 증감 분해 모두를 활용한다.

Ⅲ. 취업자 증감 분해 결과

취업자 증감 분해 결과를 고용률 변화분과 인구효과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인구 비중 변화분과 인구 수 변화분을 합한 값을 인구효과로 정의한다. 먼저 전체 취업자 증감에 대해 살펴본 후 산업별 변화에 대해 다룬다.

〈표 1〉을 보면, 2023년부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취업자가 감소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상에서 15세 이상 인구는 아직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인구 수 변화의 취업자 증감에 대한 영향③이 양의 값으로 측정될 수밖에 없다. 반면, 고령화로 인해 인구 집단 중 취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층 인구가 많아지면서, 인구 비중 변화의 영향②은 음수로 나타난다. 그 영향이 최근 들어 더욱 뚜렷해져 2023년에는 인구 비중 변화에 의해서만 취업자가 13만 5천 명 감소했다. 그 영향으로 2023년에 전체 인구효과②+③로 인해 취업자는 최초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60대 이상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25.5%에서 30.1%까지 증가했다(그림 1 참조). 다른 연령대의 인구 비중은 서서히 줄어들면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 점이 노동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어 인구효과에 의해서는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 취업자 증감을 살펴볼 때 과거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양의 인구효과를 감안하면 취업자 통계 해석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인구구조는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므로 취업자 증감에 있어 인구구조 변화의 기여분이 근 미래에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인구변화가 주로 취업자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그 정도가 고용률 변화분에 비해 작아서 전체 취업자 증감 대부분이 일하는 사람의 비중 변화

〈표 1〉 연도별 취업자 증감 요인 분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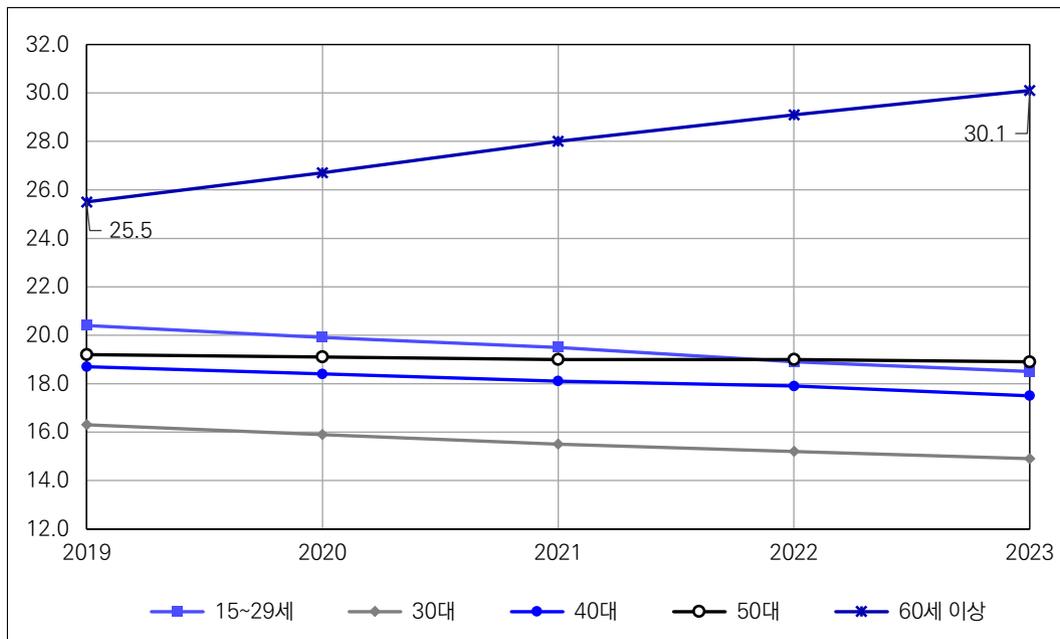
(단위: 천명, 전년대비)

	취업자 증감 ①+②+③	고용률 변화분 ①	인구효과 ②+③	
			인구 비중 변화 ②	인구 수 변화 ③
2019	301	137	-32	195
2020	-218	-340	-50	171
2021	369	247	-56	177
2022	816	799	-91	109
2023	327	371	-135	9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 연령대별 인구 비중 변화 추이(15세 이상 전체 인구 = 100)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고용률 변화분에 의한 취업자 증가가 전체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한 시기이다.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다소 부풀려졌다고 평가되던 기간이다. 요인 분해 결과를 보면, 해당 시기의 취업자 증가는 인구효과가 아닌 고용률 변화가 충분히 반영된 비교적 견실한 증가였음을 알 수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취업자가 22만 명 증가했다(그림 2 참조). 취업자 변화 대부분이 고용률 변동에 의한 것이었다. 인구효과를 제거하면 취업자는 22만 4천 명 증가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의해서는 취업자가 4천 명 감소했다. 인구구조 변화는 2022년 상반기 이후로 취업자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 못했다.

남성 취업자는 인구효과를 제거하면 감소 중이다(그림 3 참조). 2024년 상반기 증가분 1만 9천 명 중 인구효과에 의해서만 3만 9천 명 증가했고, 고용률 변동에 의해서는 2만 명 감소했다. 인구효과를 제거한 남성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이 남아 있던 2021년 상반기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최근 남성 고용 상황은 좋지 못하다.

여성 취업자는 2020년 하반기 이후 지속해서 증가 중이다. 그 폭이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4년 상반기 인구효과가 3만 명 이상 취업자를 감소시키고 있지만, 여

성 취업자는 20만 1천 명 증가했다. 고용률 변화가 여성 취업자를 23만 2천 명 증가시켰다. 여성 고용률 변화분이 전체 취업자 증가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은 2023년 상반기부터 지속 중이다.

[그림 2] 반기별 취업자 증감 분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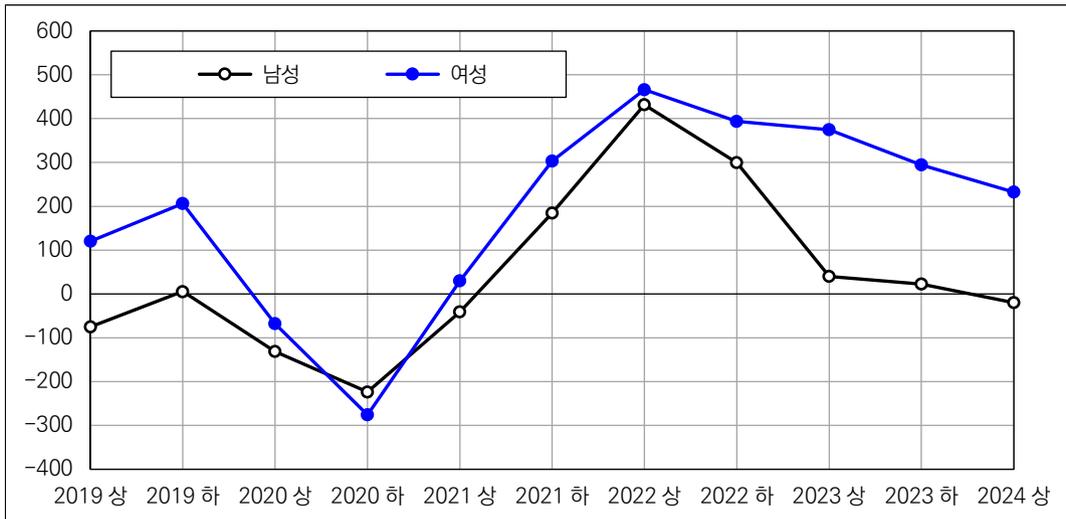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3] 성별·연도별 취업자 증감 중 고용률 변화분(①)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청년층(15~29세) 취업자 감소는 대부분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표 2 참조). 청년층 인구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구효과에 의한 취업자 감소만 10만 명 이상이었다. 고용률 변화에 의한 취업자 변동은 2024년 상반기 -2천 명으로 미미했다.

30대는 고용률 변화로 인한 취업자 증가가 특징적이다. 30대 인구는 감소 중이지만 인구효과가 취업자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지 않고 있다.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늘어나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30대 여성 취업자는 9만 6천 명 증가했고, 고용률 변화에 기인한 변동분이 10만 5천 명, 인구효과가 -1만 7천 명이었다. 여성의 고용률 신장이 30대 취업자 증가 전체를 견인하고 있다. 남성은 취업자 변동 폭이 크지 않다. 다만, 최근 들어 고용률 변동에 의해 취업자가 2만 명가량 감소했다.

40대는 전체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 40대 고용 전반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취업자 변동 대부분이 인구효과임을 감안해야 한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취업자가 8만 2천 명 감소했고 인구효과로만 11만 5천 명 줄었다. 고용률 변화에 의해서는 취업자가 소폭 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취업자 증가가 고용률 변화에 의한 것보다 많았다. 인구효과로 전체 취업자 증가 중 약 60%가량이 설명된다. 나머지는 10만 명가량이 고용률

〈표 2〉 연령별 취업자 증감 요인 분해 결과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증감 (①+②+③)	고용률 변화분 (①)		인구구조 변화분 (②+③)	
					인구 비중 변화 (②)	인구 수 변화 (③)
15~29세	2023년 상반기	-103	5	-108	-121	13
	2023년 하반기	-92	17	-109	-123	13
	2024년 상반기	-115	-2	-112	-127	14
30대	2023년 상반기	37	104	-67	-83	17
	2023년 하반기	71	112	-41	-59	18
	2024년 상반기	91	90	1	-19	19
40대	2023년 상반기	-51	35	-86	-106	20
	2023년 하반기	-56	49	-15	-126	21
	2024년 상반기	-82	32	-115	-137	23
50대	2023년 상반기	68	63	5	-16	21
	2023년 하반기	50	35	15	-8	22
	2024년 상반기	43	-9	52	28	24
60세 이상	2023년 상반기	421	212	209	191	18
	2023년 하반기	310	110	201	180	20
	2024년 상반기	282	113	169	147	2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증가로 인한 취업자 수 증가이다.

다음으로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요인 분해에 대해 살펴본다. 농림어업은 고령층 인구가 많아지면서 인구효과로 인해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농림어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가 감소했다(표 3 참조). 상반기 고령층 인구가 늘면서 이 산업 취업자가 인구효과로만 3만 6천 명 증가했으나, 이를 제거하면 6만 6천 명 감소했다.

제조업은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취업자가 증가했으나 최근 들어 증가폭이 감소하면서 향후 고용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산업이다. 요인 분해 결과 인구 비중 변화(②)가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에 이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중 변화(앞에서 고용률 변화분이라고 정의한 부분, ①)에 의한 취업자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건설업 취업자 변화는 인구효과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었다.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 변화가 주요인이었다. 2024년 2분기 들어 인구효과를 제거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건설업은 남성 취업자 비중이 절대 다수이다. 남성 청년층, 30대, 50대 모두에서 인구효과를 제거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건설 경기 침체의 영향이 고용 통계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표 3〉 2024년 상반기 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요인 분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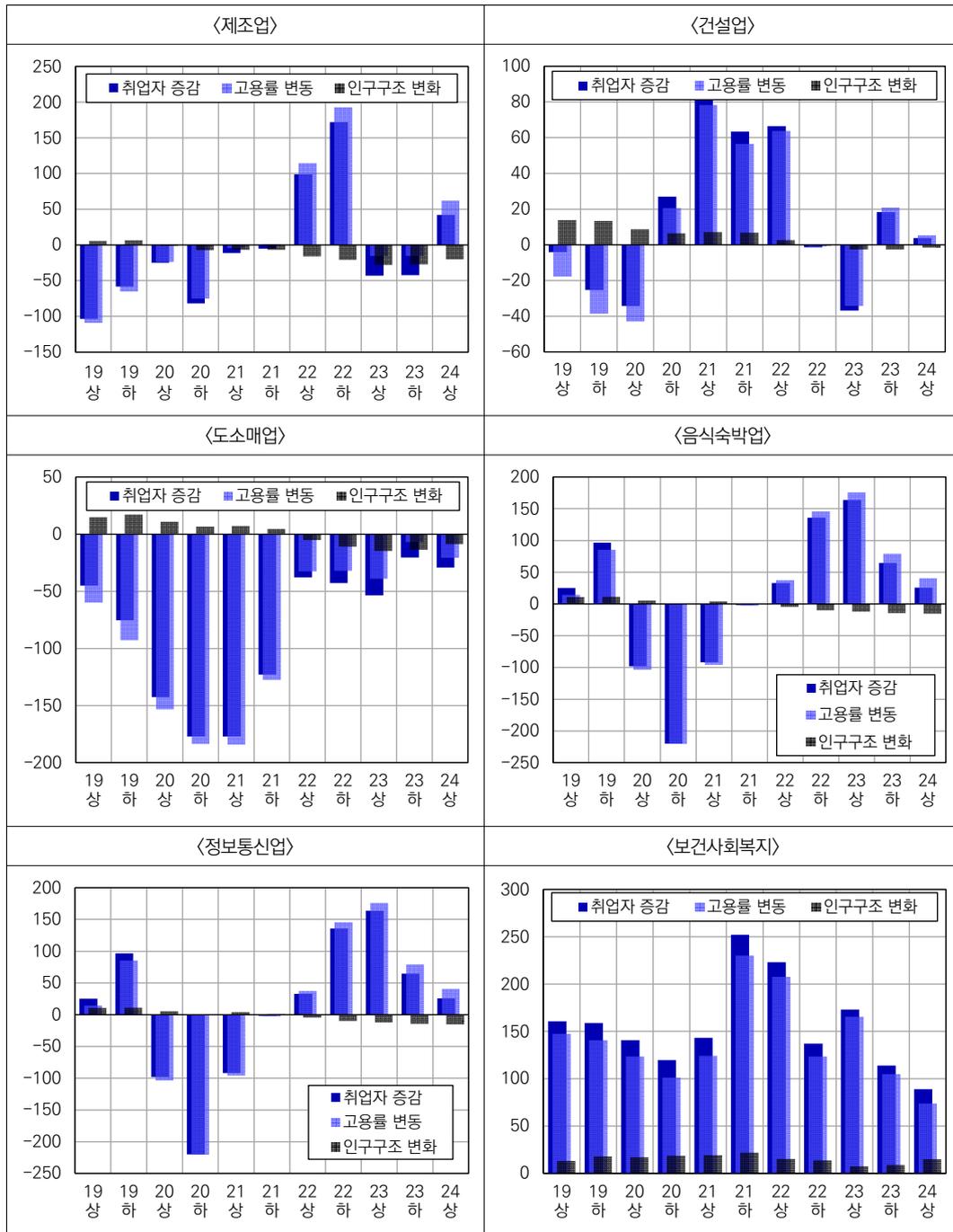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증감 (①+②+③)	인구효과 제거 취업자 수 증감 (①)	인구효과 (②+③)		
			인구 비중 변화 (②)	인구 수 변화 (③)	
농림어업	-25	-66	41	36	5
제조업	42	62	-20	-36	16
건설업	4	5	-1	-9	8
도소매업	-29	-21	-9	-20	12
운수 및 창고업	54	50	4	-2	6
숙박음식점업	26	41	-15	-24	8
정보통신업	64	74	-10	-14	4
금융보험업	-4	-1	-3	-5	3
부동산업	-19	-24	5	3	2
전문과학기술	55	64	-8	-13	5
사업시설	-51	-59	7	2	5
공공행정	50	46	4	0	4
교육서비스	-37	-23	-15	-21	7
보건복지	89	74	15	5	1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요인 분해 결과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은 인구구조 변화, 해당 산업 종사자 비중 변화 모든 측면에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 산업이다. 오프라인 매장의 온라인 대체, 학령인구 감소 등 두 산업 업황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가 고용 통계에서도 확인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인구효과를 제거한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 산업이다. 두 산업 모두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취업자 증감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늘어나는 산업 수요의 영향이 취업자 증감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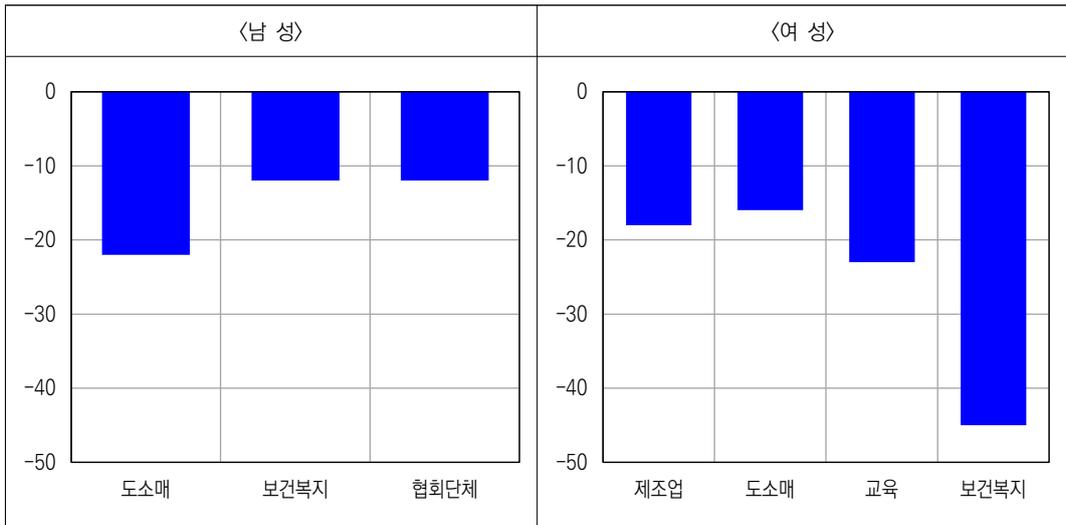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고령화로 인해 모든 측면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산업이다. 간호간병 일자리에 고령층 종사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인구효과로 인해 취업자 수가 늘어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이므로 인구효과를 제거하고서라도 이 산업 취업자는 증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024년 상반기에 인구구조 변화로 1만 5천 명,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 증가로 7만 4천 명 취업자가 증가했다.

다음으로 성별·연령별·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요인 분해하여 주요 결과를 살펴본다. 특정 산업에서 인구효과를 제거하고도 청년층 취업자 수의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나는지, 30대 취업자 증가를 이끄는 여성 취업자는 어떤 산업에서 어떤 요인으로 증가하는지, 인구효과와 관계없이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산업은 주로 어디인지 알아볼 것이다.

앞서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대부분 청년층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

[그림 5] 인구효과를 제거한 2024년 상반기 청년층(15~29세) 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서 나타나는 인구효과라는 점을 확인했다. 성별로 인구효과를 제거하고도 취업자가 감소하는 주요 산업은 [그림 5]와 같다. 청년 남녀 모두에서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인구효과를 제거하고도 4만 5천 명 감소했다. 이 산업은 청년 여성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간호인력이 포함된 산업이다. 보건업 업황, 파업 등의 영향이 해당 연령대 간호인력의 입이직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30대 여성은 2024년 상반기 인구구조 변화로 3만 2천 명 취업자가 감소했고, 고용률 변동분으로는 23만 2천 명 증가했다. 인구효과를 제거하고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대부분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에서만 약 15만 명 가까이 늘었다. 공공행정, 전문과학, 정보통신, 사업시설, 협회단체 및 개인수리 서비스업 순으로 그 증가폭이 컸다. 30대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크게 늘고 있는 집단이다. 특정 산업에서 인구효과를 제거한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해서 그 산업 인력 수요가 늘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인구구조 변화분을 제거하고도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대표적이다. 다른 산업들은 인구효과를 제외하면 유의미한 크기의 취업자 수 증가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중 증가로 인해 여성 고령층에서 6만 7천 명, 남성 고령층에서 3만 5천 명 취업자가 증가했다. 2023년 하반기까지는 고령층 사업시설 및 지원 서비스업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었다. 청소 및 경비 인력이 이 산업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2024년 상반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 밖에 성별·연령별·산업별 취업자 증감 분해 결과 중 특징적인 것을 살펴본다. 50대 남성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크게 늘었다. 2024년 상반기 남성 제조업 취업자가 7만 6천 명 증가했는데, 50대에서만 인구효과를 제거한 제조업 취업자가 6만 3천 명 늘었다. 이 연령대 남성 제조업 종사자 상당수는 생산직에 해당한다.

그리고 50, 60대 남성 운수업 취업자 증가폭이 크다. 50대에서 인구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운수업 취업자가 4만 1천 명 증가했고, 60대에서도 1만 3천 명이 늘었다. 이 연령대 남성 대부분은 육상운송업에 종사한다.

마지막으로, 인구효과를 제거하면 정보통신업 취업자 증가는 주로 여성·청년층 및 30대에서 나타났다. 청년층에서 2만 2천 명, 30대에서 2만 명 취업자가 늘었다. 정보통신업 세분류 중 업황이 나쁘지 않은 대표적인 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있다.

IV. 맺음말

취업자 수 증감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인구효과의 영향을 덜어내기 위해 고용률이 취업자 수 증감을 보조하는 고용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률 역시 인구효과를 완전히 걷어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고용률 증감은 취업자 수 증감에 비해 변화분의 크기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취업자 수 증감을 요인 분해하여 인구효과를 제거한 취업자 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수 증감이 성별·연령별·산업별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다.

2023년을 기준으로 인구구조 변화는 취업자를 감소시키기 시작했다. 인구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층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인구 자체의 변화가 과거처럼 일정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워졌다. 2024년 상반기 역시 인구변화는 취업자 수를 크게 변동시키지 못했다. 취업자 증가분 전체가 고용률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인구효과를 제거한 취업자 수 증가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2020년 하반기부터 고용률 변화로 인한 여성 취업자 증가가 전체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 취업자는 인구효과를 제거하면 소폭 감소 중이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대부분 인구효과에 의한 것이었다. 30대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은 여성이었고, 이는 주로 고용률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 40대는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인구효과에 의한 것이었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인구효과, 고용률 변화 두 요인 모두 취업자를 증가시켰다.

제조업에서는 인구 비중 변화가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에 이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중 변화(앞에서 고용률 변화분이라고 정의한 부분)에 의한 취업자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부진한 업황이 고용 통계로 확인되고 있었다. 최근 들어 인구효과를 제거한 취업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이 많았다.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정도를 제외하고, 일하는 사람의 비중 변화로 취업자가 크게 감소 중인 산업은 없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전 산업 중 취업자 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인구구조, 고용률 변화 요인 모두가 취업자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자 증감 분해 결과, 각 부문에서 인구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 상황을 평가할 때, 요인 분해를 통해 인구효과를 제거한 취업자 수 증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크기의 취업자 수 증감이 관찰된다고 할지라도 해당 통계가 내포하고 있는 고용 상황까지 유사하리라 단정 지을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과거에는 30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기본적인 취업자 수 증가를 담보하던 시기도 있었다. 현재 인구 증가폭은 15만 명대로 줄었다. 더욱이 늘어나는 인구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적은 고령층에 해당한다. 취업자 수 증감 해석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KLI**

[참고문헌]

정대희·김지운(2017), 『최근 취업자 증감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전망』, 한국개발연구원.